

# 전통 계급사회와 의복색의 심화현상

문광희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의복색은 계급사회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 삼국으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리들의 복색 흐름을 고찰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의복색의 심화현상이라는 특징을 발췌하여 동시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복색 흐름과 비교분석하였다. 색의 대상은 심화현상이 뚜렷하였던 자색과 홍색을 비롯하여 비색과 녹색이 포함된다. 문헌 연구 중심이며, 사료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복색의 유행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것으로서, 본 논문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석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고대로부터 자색은 상위직의 복색이었다. 그러나 고려조에 이르러 초기 3품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이 1100년대 중반(의종조)에 이르면 4품에까지 그 사용이 확대되었다.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당에서 자색이 3품까지 사용되었으나 요, 송, 금에서는 4~5품까지 확대 사용되었으므로, 고려도 주변국들과 복색의 유행을 같이 하고 있었다. 비색은 삼국에 비해 발해에서 (진)비와 천비로 나뉘어지면서 7품까지 사용되었고, 고려 초기에는 진비가 단색으로 대체되면서 비색이 7품까지 확대 사용되었다.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비색이 심천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656 이후 약 700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701년(大寶元年)과 718(養老二年)에 비색이 심천으로 나뉘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해에서의 기록에서 보나는 빠른 600년대 후반에 비색의 심천 구별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계급에 따른 비색의 확대 사용은 중국의 요, 송, 금과 비교해 볼 때 역시 1000년대로서 자색의 확대 사용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었고, 발해에서 유행의 시작이 오히려 빨랐다.

2) 고려 초기 문무관이 사용하였던 자색은 중기 이후에 조색 혹은 흑색으로 바뀌고 있다.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 600년대 후반부터 자색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947~956(天曆期)에 이르면 3위 이상의 복색을 모두 흑색으로 하였고, 894 1185(藤原期)에는 제신 4위와 제왕 5위가 모두 흑색의를 착용하게 되어 근세에 이르면 4위 이상의 복색이 모두 흑색이 되었다. 고려조에서의 조색이나 흑색은 주변국의 유행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자색이 흑색으로 심화되는 이유는 정쟁(政爭)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색이 심자·중자·천자로 세분화 되는 현상 또한 상위직에 대한 도전으로 자신의 신분을 보다 상위직으로 보이거나 하는 욕망의 발로였고 상위자는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옷의 색을 더욱 점점 짙게 하여 착용하였다.

3) 조선조 문무관 상위직의 관복색은 홍색이었는데, 중기 이후 점차 흑색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흑색의 옷이 예가 더 중요한 자리에 착용하는 옷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홍색의 흑색화 현상은 결국 고려 후기부터 자색이 심화되면서 흑색으로 바뀌어져 갔던 사회 심리적 현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4) 발해와 고려 초기 녹색은 하위직인 8·9 품에게만 사용되었으나 고려 중·후기에 이르면 7 9품으로 확대 사용되었고 조선조에 이르면 청색 혹은 청현색으로 심화되면서 3품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홍색의 흑색화현상과 아울러 녹색의 흑색화현상으로 모든 색의 흐름이 흑색으로 귀착된다. 흑색은 현색으로도 표현되며 모든 색이 합쳐진 우주의 으뜸색 즉 원색(元色)이다. 모두 흑색으로 귀결됨은 동양의 색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